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42장(거룩한 주님께)	다 갈 이
※ 교 독 문1(시편1편)	다 갈 이
※ 신앙고백(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85장(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 갈 이
예배기도 1부 강은순전도사 2부 강항구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사 명”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다 갈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신도사역자와 함께 세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 새해의 비전과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누가복음 4:16-19	엄정현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목적이 분명한 출발 ”	
기 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212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갈 이
동 헌(전도사역팀)	다 갈 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인 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찬 양 / 다 함 계	기 도 / 김경희집사	찬 양 / 다 함 계	인도 : 담임목사
분 문 / 베드로전서 2:4-10	말 씀 / 최세열목사	기 도 / 한마음기도	에스겔서강해
말 씀 / 최세열목사	*베드로목회7프레임 / 3.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의 예수목회	분 문 / 딤펬전1:1-11	금요기도회
축 도 / 최세열목사	축 도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대심방이 끝날때까지 쉽니다.
		“다모데를 경계하는 바울”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음주 기도	1부 이경훈전도사
	헌금위원	1월 이종봉 김혜경 함경숙 김봉순	다음주 성경봉독	2부 차소라집사
		2월 정정희 정숙자 김병국 천사라		1부 말 은 이
	2부 류종란권사			
식당봉사	금주 바나바회	다음주 베드로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이영선집사
헌신찬양	금주	전도사역팀	다음주	여신도회임원

목적이 분명한 출발 / 누가복음 4:16-19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의미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공적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말씀 하십니다. 기름부음은 공적 직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공적생애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1.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마5:3). 곧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 놓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마음이 열려있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셨고, 12제자를 부르셨고, 70여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을 세워 모사와 교사와 선교사와 전도자를 삼으십니다.

2.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포로 된 자는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잡혀온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더 본질적인 의미, 곧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희년(주빌레)을 뜻합니다.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은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의 경작을 쉬고,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는 해방의 해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양으로 내 놓으셨습니다.

3. 눈 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로 다시 보게 하심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지만 참 의미를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맹인들의 눈을 고쳐 주심으로서 영적인 무지와 맹인이 된 우리의 눈을 치유해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4.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곧 눌림입니다. 주님은 귀신들린 자들과 육체적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통해 미신과 운세와 풍습으로부터 자유토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생애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이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행복과 기쁨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현절 첫째 주(1월 12일)

제 3 과 행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전도서 5:18절)

(함께 읽을 말씀 : 누가복음 4:18-20, 요한일서4:4-6)

말씀묵상

1.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전5:20)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 된 자와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어렵게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인간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불행한 것으로 나타 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바누아투, 부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내총생산이나 경제력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와 바누아투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 바누아투와 비교하면 무려 2,582배나 높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자기 개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 키는 180cm, 여자 몸무게는 50kg 미만, 주걱턱이나 사각턱은 죽음이고, 얼굴은 작아야 하고, 쌍꺼풀은 필수요, 보조개는 선택! 옷과 신발과 가방은 당연히 명품으로!’ 이뿐이 아닙니다. 대학은 당연히 몇몇 명문만을 쳐주고 직업도 몇 가지만을 좋은 직업으로 여깁니다. 이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3. 물론 유행이라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세상의 말에 솔깃해한다고 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TV와 광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무분별하게 세상의 말과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세상이 흔히 하는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를 적그리스도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요일 4:5). 이 말은 일차적으로 세상의 말로 교회를 흐르는 적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일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편입되어 있으면 외모와 조건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흉내 내고 따라오라고 부추깁니다. 행복에 정해진 정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말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2.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회는 예배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든솔 선교활동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가정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 신년축복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일(목) : 8구역, 17(금) : 6구역입니다.
6. 찬양예배 시간에 올 해 교회 사역을 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직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각 구역은 바뀐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여신도회 경기연합회 새해맞이 예배 및 임원교육이 1월 14일(화) 오전 10:30에 분당한신교회에서 있습니다.
9. 경기노회 신년하례회가 13일(월) 오전10:30에 초월교회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이완수 김봉순 박상귀 공영순 김홍영 김동기 김보경
- 감사헌금 : 유재욱 양희임 김동현 김지환 김애자 강항구 류종란 신공님 무명2 (생일)최지현 (일천번제)김동현 (심방)최승만 심복례 양석임 박상귀 공영순
- 건축헌금 : 박희순 박상귀 공영순 홍강의 김성희 강동균 김현아 에스더회
- 비전씨앗 : 노장호 노현호 강항구 류종란 강동균 김현아 배영인 양희임 박기환 방옥남 박홍만 정정희 김혜경 무명
- 신년감사 : 이종봉 이춘호 김혜경 강신근 한은미 강다미 강다원 강승리 윤승호 최경선 방옥남 박치국 이영란 박광섭 김정화 이완수 김봉순 정민경 김애자 안해숙 한미경 나인원 나인애 김동현 임병호 김경희 양희임 이경훈 최세열 조성순 최지현 이종춘 심문자 김태현 강지선 김서이 이강영 최영랑 선우명환 장영분 김홍영 황은상 김대봉 강은순 김선주 원혜경 김예진 김승호 김금자 노장호 노현호 안복선 안제영 안제은 김애경 고승현 김선오 강항구 류종란 정덕진 이유선 한상호 차소라 한재현 한진현 강경원 한국희 강푸른 홍강의 홍보연 홍석규 양석임 김인순 안진영 안드레 김선영 박홍만 정정희 함경숙 김병국 김기희 신공님 박상귀 공영순 이문순 안진영 이종춘 심문자 주종임 정선례 박희순 김병진 김귀래 박경자 최임춘 이근욱 조은미 강동균 김현아 강소윤 정재영 노대성 이유자 김한순 나주익 최승연 박지영 박기환 한옥자 김중천 이영선 허 웅 김순님 무명6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행복한 자유인

빠빠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수차례 탈출을 시도한 끝에 악마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주인공은 탈출하기 전 친구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하지만 친구는 가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악마의 섬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외칠 때 남아 있던 친구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스티브 맥퀸이 연기한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프랑스의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1930년 앙리 샤리에르가 스무 살 때 파리 시내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그 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앙리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실적에 눈이 먼 검사가 현장 근처에 있던 앙리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결국 아홉 번의 시도 끝에 14년 만에 탈출한 샤리에르는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갖은 일을 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1967년에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젊었을 때 다니던 거리,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장소, 어릴 때 꿈꾸던 미래를 떠 올리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샤리에르는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체포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네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여기에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나는 지금 확신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 네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앙리는 복수와 증오로 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37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던 '자기'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정말 행복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2호 2014.1.12.

1월의 교회 행사안내

1. 신년제직회 : 1월 6일
2. 평신도참여예배 : 여신도회 주일 -1월 19일
3. 해든솔 선교활동 : 1월 11일
4. 신년축복대심방
- 2일 : 1구역, 3일 : 2구역, 7일 : 3구역, 9일:4구역
10일 : 9구역, 16일 : 8구역, 17일 : 6구역
21일 : 7구역, 23일 : 5구역, 24일 : 10구역
5. 노회행사
1) 경기노회 신년하례회 : 1월 13일(월) /초월교회
2) 여신도회 경기연합회 신년예배 : 1월 14일 / 한신교회

신년제직회 결과보고

- * 제직회서기:장영분권사, 부서기:김홍영집사
- * 회 계 : 노재의집사(기록), 김선주집사(출납)
- * 건축회계 : 김금자권사
- * 봉사부장 : 정정희권사
- * 친교부장 : 김혜경권사
- * 관리영선부장 : 엄정현권사
- * 차량운영부장 : 박기환집사
* 5월 체육대회준비 : 바울회
* 전교인가을수련회준비 : 바나바

새 가족 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 양희임권사, 김희선집사(김동현) 원천주공2단지 214동 101호
김주희(김지환) 원천주공2단지 214동 102호
- * 강국환집사, 김용선집사 - 영통구 이의동 광교 자연안 힐스테이트 5413동 1402호
- * 이용훈집사, 김영숙집사 - 매탄2동 한국1차 아파트 106동 1001호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